만화는 '필요악적' 존재인가

'만화세미나'서 문제점과 대책 모색

80년대 후반 들어 폭발적인 '만화붐'이 일면서, 일본만화의 무분별한 복사출판과 상업성에 치중한 저질만화가 어린이 · 성인용의 구분없이 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수위에 이른 만화공해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월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원식) 주최 '88만화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만화의 문제점과 그 타개책"이 광범하게 모색됐다.

'만화인구'가 늘어나면서 폭력과 외설이 난무하는 저질만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내용표현 '하한선' 마련해야

이날 세미나에서 이원복교수(덕성여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만화, 성인만화, 대본소, 심의제도 등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아동만화는 '만화 잡지'에 그 척도를 두는데, 이원복교수는 만화잡지의 작품성향 · 내용수준 등을 볼 때 어린이가 볼 만한 잡지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즉 어린이 수준에 알맞은 내용보다는 독자대상을 애매하게 잡아 독자층을 넓히려는 극단적 상업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편집권의 독립, 독자대상의 분리, 신진작가 발굴 등 제조건의 충족을 들었다.

다음으로 성인만화의 경우, 본격적인 만화시대의 예고로서 성인만화잡지의 대거 등장 등 양적으로 굉장한 팽창을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특징있는 잡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즉 말초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위축돼가는 현대인에게는 '필요악'적인 요소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이를 공권력으로 억압하여 음성화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작가 · 제작자가 합의하는 심의제도" 바람직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대본소와 심의제도 문제를 고찰했는데, 이미 청소년들의 종합휴게실로 그 성격이 변모해가는 만화대본소의 경우 주고객이 청소년으로 바뀜에 따라 만화내용에 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 대두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여기서는 대부분 강렬하고 자극적이며 외설적인 내용이 극단적 상업성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 공공연히 나도는 일본만화의 해적판과 서점용 단행본의 역류현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불법적인 일본 상업만화로 인해 한국의 도덕허용치를 넘는 외설과 폭력이 그대로 한국청소년 독자에게 흡입되고, 서점판매용 만화가 대본소로 역류함으로써 시장유통구조가 문란해지고 만화시장이 크게 위축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재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

만화의 또다른 제도적 측면으로 사전심의 문제가 있다. 이는 특히 작가들에 의해, 작품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초점이 된 사항이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창작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전심의'란 커다란 모순이라고 전제하면서 "작가 · 독자 · 제작자가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합의적인 심의제도를 추출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만화' 육성에 제도적 장치를

이어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출판인 · 만화가 · 언론인이 각각의 입장에서 의견개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원복교수의 문제제기에 다같이 동의했다.

출판인 이종세씨(이원문화사 대표)는 일본만화 해적판의 난립과 대본소의 단행본만화 역류현상은 단행본 만화출판사의 도산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공공연한 해적판 출판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화가협회장 고우영씨는 작금의 만화문제는 갑자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누적 · 심화돼온 것으므로 역량있는 만화가들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좋은 만화를 육성하기 위해 '만화진흥공사'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만화 선정, 만화가들의 모임 등 제도적 장치로 좋은 만화가 적극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경향신문논설위원 朴錫興씨)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YWCA만화모니터 신수자씨는 모니터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언어(유행어남발 · 코미디물 모방 · 거친 언어사용)와 그림(복잡한 선 · 과장된 묘사), 국적없는 인물 등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여 아동만화의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한편 대한어머니회 교육처장 한정자씨는 주제발표자의 사전심의 철폐 주장에 관해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결국 이 세미나는 양적 팽창에 의해 대중에 대한 만화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마음놓고 권할 수 있는 아동만화 육성, 섹스 · 폭력이 무절제하게 묘사되는 성인만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집중 논의됐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본해적판 만화출판을 조절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가 담긴 독립적인 만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은 정리됐다.

"문화의 모든 장르에서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늘 지적되는데, 나쁜 것은 아무리 드러낸다 해도 다 드러낼 수 없으니만큼 가장 좋은 내용물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자인 이중한 논설위원의 결론이었다.

—김지원 기자

선정도서전 · 도서관 무료개방 등

제34회 '독서주간' 기념행사 활발

10월24일부터 30일까지는 '독서주간'. 예년에는 9월하순이던 것이 서울올림픽 관계로 한달 늦춰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번 독서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출협은 특별전시로 '선정도서전시회'를 갖는다. 교보문고 · 동화서적(지하철 강남역) · 을지서적(지하철 을지로입구역) · 서울문고(영동 무역회관 지하) 등 네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문공부추천도서 1,200종, 이달의 청소년도서 300종, 국립중앙도서관 선정도서 200종 등 모두 1,700여종의 선정도서가 전시된다. 전시기간은 10월25일~31일까지. 이와 함께 25일 오후 5시~7시에는 시내 요소에서 가두 독서캠페인도 벌일 계획.

또 출판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과 기념강연도 열린다.

▲대통령 표창= 金奉圭(삼성이데아 회장) 尹炯斗(범우사 대표) ▲국무총리 표창= 金炳翼(문학과지성사 대표) 田炳晳(문예출판사 대표) ▲문공부장관 표창= 尹青光(동국출판사 대표) 金京熙(지식산업사 대표) 姜海作(기문당 대표) 尹錫金(웅진출판사 대표) 秦漢哲(평범사 대표) 金永鎭(성서교재간행사 대표) 張河麟(종로서적 대표) ▲기념강연= 독서추진운동과 출판인의 각오(金容九 · 한국일보 논설위원)

한편 기간중 전국의 공공도서관(175개)이 무료개방되며, 지역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특별순회문고를 운영하거나 독후감쓰기대회 · 독서강연회 등이 마련된다.